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대책

이 호 분

연세의대 정신과

1995년 학우들과 집단 폭력에 의해 고통을 당하던 학생이 자살하고 자신을 놀리는 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이 마스크를 통해 알려져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10대 집단 청소년 폭력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일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일로 취급될 만큼 학교 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학교 폭력은 어느 특정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해가 청소년기의 사망 원인 중 두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청소년기 남자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 먼 얘기는 아닌 듯하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폭력을 스스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내에서 학대나 폭행 받은 경험, 지역 사회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 영화, TV 등의 매체를 통한 폭력의 간접적 노출도 청소년기 이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어, 직간접의 폭력 피해는 또 다른 폭력을 낳아 "폭력의 연쇄 고리"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I. 학교 폭력의 실태

즉, 1996년도의 서울과 청주의 고등학교 2학년 962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금품 갈취, 공갈 협박 등을 42.9%에서 경험하며 단독 구타가 53.0%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집단 구타가 39.1%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1995년 시도 교육청에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소년 폭력에 의한 금품 피해는 42만명에 달했고, 피해액만도 17억원이라고 하

였다.

우리 교실에서 작년 서울 시내 5개 중학교에서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학생 1,345명 중 605명(45%)에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25$). 남학생은 670명 중 323명(48.2%), 여학생은 675명 중 283명(41.9%)에서 집, 학교 또는 동네에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집에서 폭력을 당하는 빈도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은 학교나 동네에서 폭력을 당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여자보다 높았다.

II. 폭력 가해자의 유형

폭력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즉 ① 사회 생물학적 유형(biosocial group) 즉, 주산기 문제 등 경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고 가족 관계의 갈등, 불안정성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군, ② 생물학적 유형(biological group) 즉, 사회심리학적 요인 없이 주산기 문제, 조산, 발달지체 등 신경학적인 생물학적 요인에서 기인한 군, ③ 사회학적 유형(social group) 즉, 신경학적 이상 없이 사회, 심리, 경제적 원인에서 기인한 군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① 사회 생물학적 유형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청소년의 폭력 행동은 약물 남용이나 범죄 행위 등 다른 비행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있어서도 따로이 생각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폭력의 요인은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의 강압적인 상호 작용, 아동학대 등 지나친 신체적 구타, 폭력에의 노출(대중 매체를 통한 폭력에의 노출, 가정 폭력 등),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소(충동 조절 능력의 장애,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등) 등의 장기적인 요인과 약물 사용, 폭력 집단의 형성(gang formation) 등의 단기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정신과적 질병과 청소년의 행동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차츰 폭력 행동과 정신과적 증상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우세하다. 폭력적인 청소년들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면,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 반항장애, 두부외상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우울증 등의 정동 장애, 약물 남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청소년 비행을 말하는 행동장애와 30~50%에서 병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행동 장애에의 위험도가 5배나 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폭력 행동과 정신과적 질병과는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여성의 폭력 행동 중 80%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폭력 행동을 보인 여성은 과거력상 강간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폭력 행동을 그 유형에 따라 predatory type(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쓰며, 자율 신경계의 흥분이 경미한 유형)과 affective type(특별한 이득이나 목적이 없이 폭력을 쓰며, 자율 신경계의 흥분이 극심한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Affective type인 경우 lithium, carbamazepine 등의 약물에 특히 잘 반응한다고 한다.

III. 폭력 피해자 유형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에 대해 그 유형을 학문적으로 정론화하여 이야기하기는 아직 힘들다. 하지만 대개는 자기주장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 융통성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잘난척하는 학생이라고 생각된다.

본 교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가정 내에서 폭력을 많이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

1년을 제외한 일생동안에 폭력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환자에게 대한 임상적 연구들에서 대개 과거력상 집안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하고, 아버지가 직업이 없이 실직 상태인 경우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부족한 사회기술, 문제 해결 능력, 융통성 부족, 낮은 지능, 결혼 가정, 가정 불화, 자기애적 성격, 환자의 키, 몸무게 등의 신체 조건이나 신체 질환, 사회경제적 상태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폭력 피해 부작용

폭력을 당한 이후에 오는 심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포반응, 우울, 낮은 자존심, 죽음과 상해에 대한 걱정,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분노 반응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포반응은 이후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나아가 성폭행, 신체적 상해, 살인 등의 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공포, 불안, 불신감, 인지손상, 인격 변화를 초래하고 기억, 학습, 학교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나이가 어린 경우에 심하게 나타나며, 병전 성격이 내성적이고, 우울감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교실에서 연구한 바, 학교 폭력을 당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상위 25%과 하위 25%을 기준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세 군간의 폭력에 의한 정신과적 증상의 점수를 분산 분석하여 본 결과 세 군간 정신과적 증상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폭력에의 노출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은 여자, 부모가 음주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 자신이 술이나 담배,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폭력 문제와 물질 남용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공존에 관련된 연구는 이미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약물남용의 과거력, 반사회적 인격 장애, 불안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폭력에의 노출이 많고 이에 의한 심리적 후유증이 많다.

V. 대 책

청소년 폭력이 우리에게 비해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미국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개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청소년 폭력에 대한 접근은 70년대까지도 효과가 있는 개입 모델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속수무책의 상태였다. 그 이후 여러 가지 개입 모델이 시도되었는데, 처음에는 클리닉에 내원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 치료 등의 개인적 접근(individual approach)이었던 것이 차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까지 도입되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의해 ① 교육적 접근(educational approach), ② 환경 조절적 접근(environmental approach), ③ 통제적 접근(regulatory approach), ④ 병행 접근(combined approach)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육적 접근이라 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 앞에서 말하기, 통솔력 훈련(leadership training), 약물 남용, 가정 문제와 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 등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뉴욕에서 실시되었던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 미국내 225개 학교에서 실시된 바 있다. 아직 이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교사들에게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환경적 접근은 폭력이 빈발하는 장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다던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적 접근이 있어 청소년의 무기 소유나 야간 외출 등에 관해 법적인 규제나 정학, 퇴학은 학칙에 따라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 폭력의 감소는 입증된 바가 거의 없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은 예방 의학적 관점에서 1차 예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 방식이나 개념이

차츰 발전하여 최근에 다체계적 접근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다체계적 접근이라 함은 지역사회, 학교를 근간으로 하여 가족, 또래 집단을 모두 포함한 접근법을 말한다. 개인적 접근과 다체계적 접근 각각 실시한 두 군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다체계적 접근을 취한 군에서 청소년의 폭력 행동이 의미 있게 감소했으며, 부모들도 여러 정신과적 증상이 의미 있게 해소되었고,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도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4년 후에 청소년 폭력 행동이 재발이 개인 치료군에서 74.1%인데 반해서 다체계 접근법을 적용한 군에서 22.1%로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법적 통제 접근군과 다체계적 접근군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폭력 행동의 감소, 개입 비용, 가족 결속력의 측면에서 모두 다체계적 접근법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체계적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발달이론가인 Brofenbrenner, Bell 등과 가족 체계 이론가인 Baley, Minuchin 등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Brofenbrenner(1979)는 사회 생태학적 이론을 통해 개인을 그가 속한 시스템의 산물이요, 개인과 시스템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 파악하였고, 발달학적 과제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Minuchine 등은 '개인의 행동 문제는 가족 관계의 문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청소년은 여러 시스템 즉 학교, 가정, 또래 관계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깊숙이 받고 있는 시기이며, 행동은 상호적으로(bidirectional) 일어난다는 개념을 이룬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주로 통제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학교를 통해 취하는 정책은 형식적인 실태 조사 수준이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폭력을 당하는 학생 등이 갖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여야 한다. 이 위험요인은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걸쳐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시스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